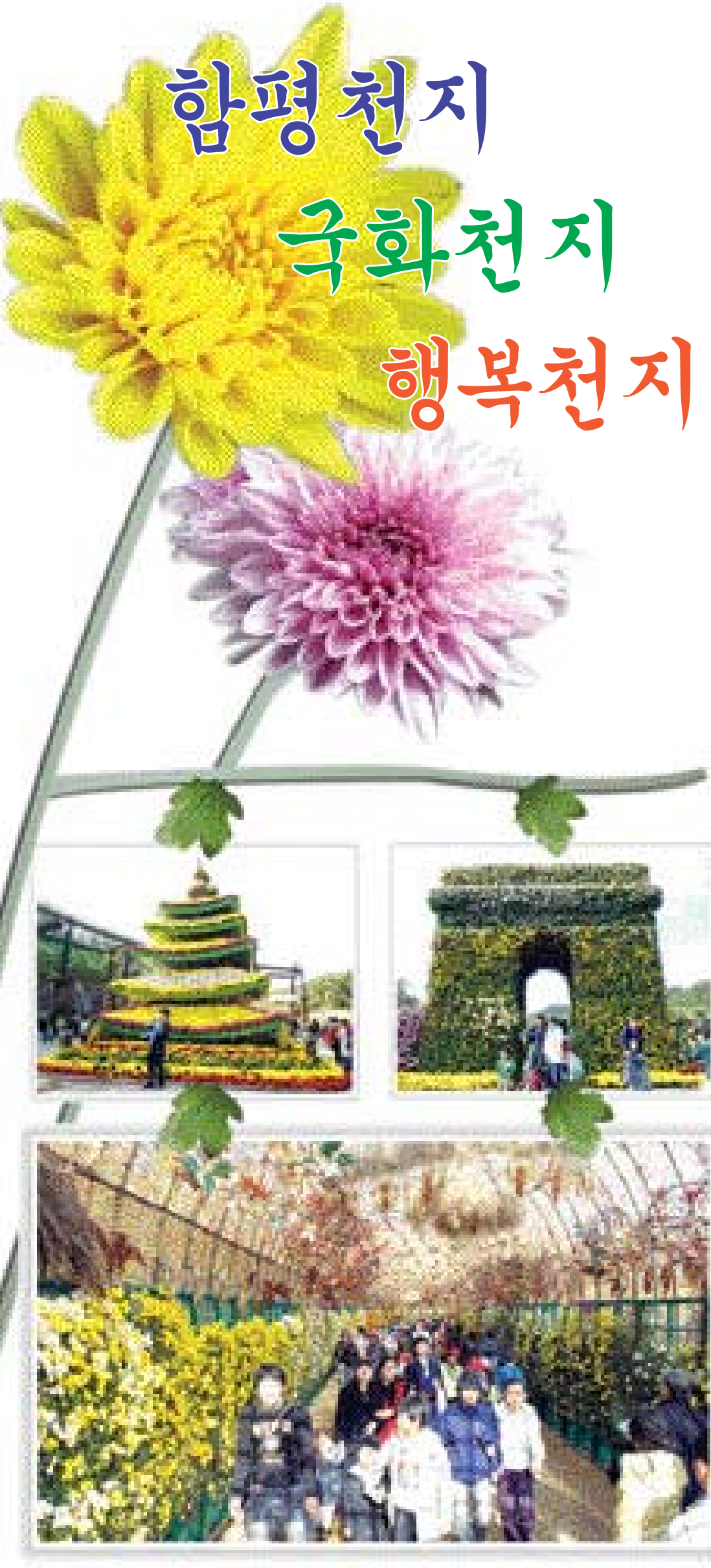


레저 & 트래블

가을 정취 만끽 '대한민국 국향대전'

노란 은행잎이 채 물무게를 이기지 못한지 오래고 길가에 낙엽이 필
곧바로 가을 정취를 고조시킨다.
국화향기와 함께 만추의 한 기운으로 떠나보자. 함평군 함평자연생태
공원 일대는 노랗고 빨갛고, 하얀 꽃물결이 일렁이며 바람난 가을 여행
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일대는 지금 국화가 지천으로 노랗게 있다. 오는 18
일까지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벌이고 있는 국화밭은 이번 주말
정점의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인다.
올 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국향대전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진화했
다. 전시행사와 체험행사, 상설행사에 '황토와 들꽃제상' 이 선보이는
또 하나의 국화축제가 연계돼 볼거리가 풍성해졌다.

함평천지
국화천지
행복천지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절정을 향해 치달리는 '국화평야'가 조성
돼 있다. 3만3천㎡에 노랗고, 하얗고, 빨간 국화꽃이 길어가는 가을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가을 바람을 타고 오는 국화향은 코끝을 타고 온몸을 돌아 한순간 국
화향으로 변신한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꽃대밭에 달린 꽃망울에선 노랗거나 보랏빛, 하얀 꽃이 벌어져 섬기 급한 너
석은 벌써 꽃잎을 떨굴 지경이다.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국화가 따로 고귀한 자태와 그 향기에 있어 百花의 으뜸
이다. 한겨울 그 향에도 얼어 죽지 않고 불부터 무더운 긴 여름을 지나 늦가
을 무서리를 맞아 가면서 아름다운 자태와 그 향기를 흐트러 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인고의 꽃이라 불리고, 다른 꽃들과 구별해 옛부터 문인, 묵객들이 四
君子의 하나로서 국화의 고결하고 품위있는 덕성을 시조나 시를 지어 칭송했다.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바람을 타고 오는 짙은 향기로 국화는 사람들에게 많
은 사랑을 받아왔다.

관광객들은 국화평야에서 이미 국화향기에 취해 버렸다. 관람이 시작이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나들이 나온 이들의 얼굴은 이내
가을빛으로 변해버렸다.

꽃밭을 나서면 생태공원에 조성된 전시행사장에서 국화의 또 다른 멋을
만끽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앞 5층 높이의 대형 국화 꽃탑이 인상적이다. 육각실 안에
국화 분재와 축부쟁이, 구절초, 야생화, 열매식물등을 이용한 산경전시관
이 조성돼 있으며 온실 앞 동선을 따라 생태공원 4계를 탐은 사진작품
40점이 발길을 잡아끈다.

소인국 테마파크에는 국화를 이용해 만든 대형작품이 장관이다. 개
선문, 에펠탑,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 모형에서부터 침상대와 석가탑,
거북선, 등 특수 모형작품이 즐비해 국화나라의 걸리버가 된 기분이다.

반달가슴곰 관찰원 쪽 국화터널을 지나면 국향대전의 백미인 국
화 전시관에서 '현대대작'과 '다분대작', '입국 다간작', '대형 3간 대
국' 등을 만날 수 있다. 현대대작은 소국을 이용해 한뿌리에서 자
란 잎들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고, 다분대작은 대국을 이용해 크게
만드는 것이다.

황산, 옥광묘, 화불, 귀부인등 이름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국화꽃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반긴다. 대동호반을 배경
으로 우리나라 지도 모습등 국화를 이용해 만든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작품을 취하고 국향에 취해 발걸음을 옮기면 국화 청주가 발
길을 잡는다. 한 잔 기울이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국향에 금새
온 몸이 하얗고, 빨갛고, 노랗게 물드는 것 같다.

한잔 술에 취취가 깨기전 대동호 주변 1천500㎡ 황금빛 국화
동산에서 길이 20m, 폭 5m의 국화터널을 지나며 마지막 국화
잔치를 즐겨보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고, 또 천
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며...' 미담 서정주 님의 시가
국화축제와 함께 곁여가는 가을을 아쉬워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라도 맛 기행

광주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토굴 김치찜'



3년 숙성 김치 깊은가을같은맛

고등어와 함께 조리 먹으면 행복 충전

김치는 웰빙 바람을 타고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이 됐
다. 막 담근 생김치를 찜작 찜작
내 따뜻한 햇볕위에 올려 먹는 맛
은 한국인이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김장김치를 몇
해동안 숙성시켜 김치찌개를 끓
여 먹든지 한 여름 얼음물에 밥
을 말아 곁들여 먹는 맛은 식객들
의 호사다.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김치가
맛있으면 다른 음식 맛을 의심할
필요 없을 정도로 김치는 맛을 대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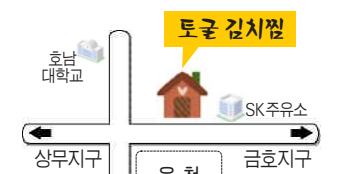
광주시 서구 쌍촌동 976-35번
지 운천저수지 앞 '토굴 김치찜'
이 가만 곁여가는 가을만큼 3년
동안 숙성시킨 김치맛을 만끽할
수 있다.

토굴 김치찜의 메뉴는 '고등어
김치찜'과 '돼지 김치찜'이 대표
적이다. 주안장 김광일(여·57)씨
는 가을이면 고향인 고창 지역 분
가에서 수천포기의 김장을 담가
토굴을 만들어 저장한 뒤 3년만
에 손님들 밥상에 올린다. 김 사
장은 김치맛이 흡사 달걀찜과 바
혼자서 수천포기의 김치를 다 담
글 정도로 손맛과 정성을 강조하
다.

이렇게 숙성된 김치는 2시간
정도 조리고, 신선한 고등어는 30
분 정도 조리 노란 양념밥에 담
아 손님 상에 올린다.

상위에 놓인 노란 양념밥과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5개 만점)



합동법률사무소 (광주지방법원 앞)
☎433-7799 H.P. 011-1770-3328
▶아파트/빌라 (단위 단면)
▶주택/원룸/근린주택
▶대지/농지/임야/공장

LC타워(주)
☎(대)872-8004, ☎(010)7154-688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존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병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
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고관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중개업자 중개 환영-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011)609-0836
(광주주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토지매매
전원주택
기타부동산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3-1140, ☎(010)211-802-5522
(동주연 신촌동, 대인동 상생사거리)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
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임으
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
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
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
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
겠습니다.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동명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동명빌딩 2층)
건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798천 빌딩 급매
▶13억9천 빌딩 20x10m코너
▶12억5천 1층 점포 12칸 병원부지
▶13억 고시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120억 공장부지
주요주주주주주주
▶11억5천 시외 주주소
▶13억5천 시내 주주소
▶120억 공장부지
▶120억 공장부지
▶120억 공장부지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지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525-0021, 친철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지 투자상담 환영!!
현금투자 최우치
현금투자 최우치 긴급매매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